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개원 10주년 준비위원회, '미래기획분과', '행사기획분과' 워크숍 개최



동국대학교병원은 개원 10주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10주년 준비위원회의 '미래기획분과 워크숍'과 '행사기획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기획분과'는 워크숍에 앞서 5일부터 7일간 '새로운 도약을 위한 Vision 2020'의 주제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교직원 의견이 반영된 동국대학교병원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워크숍에서는 설문조사에서 나온 교직원의 생각을 공유하고, 비전, 전략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참석한 31명의 위원은 3개 조로 나누어 토론 및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의 비전과 전략 키워드를 도출했다. 새롭게 재설계되는 Vision 2020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10주년 개원기념식에서 선포하고 새로운 동국대학교병원으로 걸음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같은 날 열린 '행사기획분과' 회의에서는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방안과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였다.

개원 10주년 준비위원회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일이 10주년 기념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리진 동국대학교병원과 함께하는 새로운 동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02 인도네시아 보건부 관계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방문



서울이니셔티브(SI) 인도네시아 시범사업 최종보고회와 현장견학을 위해 대한민국을 찾은 인도네시아 보건부국장 외 7명이 13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영상의학과를 방문했다. 방문단 일행은 11일 김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영상의학과 김정숙 교수가 진행한 '직업성 폐질환의 영상의학적 진단'의 강의를 듣고, 13일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본원을 찾았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산하 폐 전문병원 엘자리타 알바인 병원은 "자매결연을 통하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첨단 장비와 우수 의료진의 수준 높은 의료를 배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서울이니셔티브(SI) 시범사업 중 하나로 환경부가 발주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인도네시아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환경보호를 위한 이니셔티브 역량강화사업" 최종보고회 일정으로 방문했다.

03 의료정보팀, 새 우편번호 시스템 전환 성공적으로 마쳐

의료정보팀은 8월 1일부터 시행한 5자리 새 우편번호 시행에 맞추어 7일 심야 작업을 통해 우편번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수정 완료했다.

정부는 2014년 1월 전국에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였으나, 6자리 우편번호가 행정 불편을 초래하여 조금 더 빠르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새 우편번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의료정보팀은 정부 발표에 따라 안정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들과 신뢰를 확보하고 환자 진료에 문제점이 없도록 새 우편번호 시스템으로 발 빠르게 전환했다. 앞으로도 한발 앞선 의료정보서비스를 바탕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개편된 우편번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기초구역' 번호에 기반을 두고 6자리 번호가 5자리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5자리 중 앞 2자리는 특별(광역시)·도를 식별하는 번호이고 세 번째 자리는 시·군·자치구를 나타낸다. 그리고 끝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차례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주인공 33호

물류팀

박용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 물류팀의 박용진 선생님을 이번 주 주인공으로 소개합니다.

매주 갖는 원내 탁구동호회 모임에서 탁구라켓으로 씹 없이 몸을 움직여 공을 쳐 내고, 땀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드라이브를 넣는 그는 무척 행복한 표정입니다. 신나게 탁구를 마친 후, 김정리를 서두르는 그에게 묻습니다. "다른 약속 있으세요?" 하니 "이제 수영 가야죠~"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헉~~^^"

그는 떠나기 전 항상 직업 정신(?)을 발휘하여 탁구라켓에 묻은 먼지 한 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라켓과 탁구대 클리너를 준비하여 탁구대를 닦는 수고도 마다치 않습니다. "의료 장비뿐 아니라 탁구용품 관리도 나의 몫"이라며 애정을 보냅니다. 또 있습니다. 매주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운동장을 누비는 일도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는데 박용진 선생님께서 운동 없는 하루는 양꼬 없는 찐빵이며 뒤통이 없는 산행일 듯합니다.

실컷 땀 흘리고 난 뒤의 개운함을 즐기는 운동 사랑이 바로 매사에 의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원동력이 되고, 날렵한 몸매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겠지요. 박용진 선생님의 운동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정신은 작아 보이지만, 합쳐진다면 더욱 건강하고 강한 병원이 되지 않을까요^^.

약제팀 파트장 김미경